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후쿠이현
시책명칭	도쿄대학교의 종합장수학(gerontology) 공동연구		
개요	<p>○후쿠이현에서는 도쿄대학교 공동연구 협정을 체결하고 시정과 의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개성있게 나이를 들 수 있는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p> <p>○시책의 하나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노쇠예방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후쿠이현 하의 전 시정(市·町)에서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할 전망이다.</p> <p>○또 하나는 재택개호시 의료와 개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현재는 현 전체로의 전개를 끝낸 상태로 더욱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p>		
예산액	0. 1 억엔		0. 1 백만 미달러

### 1. 과제 (현재 상황)

- 후쿠이현의 고령화율은 30.4%(2019년 4월 1일 현재)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으며 2040년에는 약 3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40년에는 현재의 약 4분의 3으로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 후쿠이현은 평균수명, 건강수명 모두 전국 상위권으로 앞으로도 평균수명 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수명을 그와 동등 이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 후쿠이현의 요개호 인정율은 17.6%(2019년 1월말 현재)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피보험자 1명당 개호급부비는 전국에 비해 10% 이상 높은 상황이다.

### 2. 목표(장래상)

- 건강수명이 평균수명 이상으로 연장되고 고령자가 건강하고 의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 의료와 개호가 필요해져도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 3. 시책 내용

#### (개요)

-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후쿠이현에서는 도쿄대학교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개성있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만들기’를 연구과제로 하는 종합장수학 공동연구협정을 2009년에 체결(그 후 2번 갱신)하여 재택케어와 건강증진 추진시책을 펼치고 있다.
- 재택 케어와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에 관해서는 시정이 주체가 되어 또 의사회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어 현·도쿄대학·시정·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후쿠이현 종합장수학 추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관계자간에 정보공유를 도모하며 추진하고 있다.

#### 【노쇠예방의 추진(2017년~)】

- 도쿄대학이 개발한 노쇠예방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도자(트레이너)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정에 대해 필요한 기기의 구입비용 등을 조성하는 등, 현 전역의 시정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쇠란, 가령으로 근력과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요개호와 건강의 중간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노쇠 초기에 그 징후를 알아채고 생활습관을 재고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 노쇠 예방 프로그램은 반년에 1번 ‘영양’ ‘운동’ ‘사회참가’의 3가지 관점에서 노쇠 징후를 스스로 확인하는 ‘노쇠체크’를 통해 자발적인 노쇠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택케어의 추진(2010년~)】

- 고령자가 안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의료와 개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모델지구(사카이시·아와라시)에서 연구를 진행한 후 각 지구의 군·시 의사회와 시정간에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후쿠이현 전역으로의 전개를 도모하였다.
- 나아가 2017년부터는 앞으로 전망되는 재택의료의 필요량 증가 및 일손이 될 재택의사 등의 감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장래에 발생할 재택의료의 수급 격차를 가시화하여 그것을 지역의 의사나 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정보와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재택의료 제공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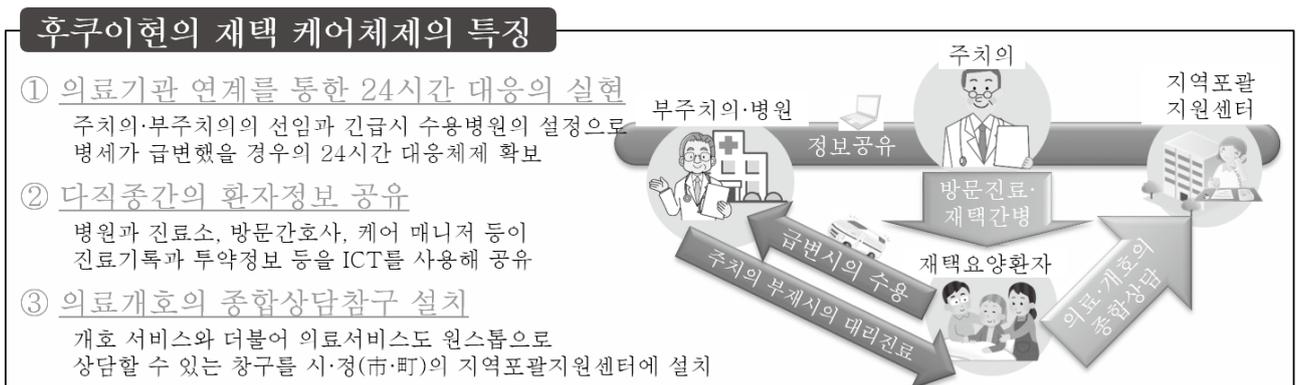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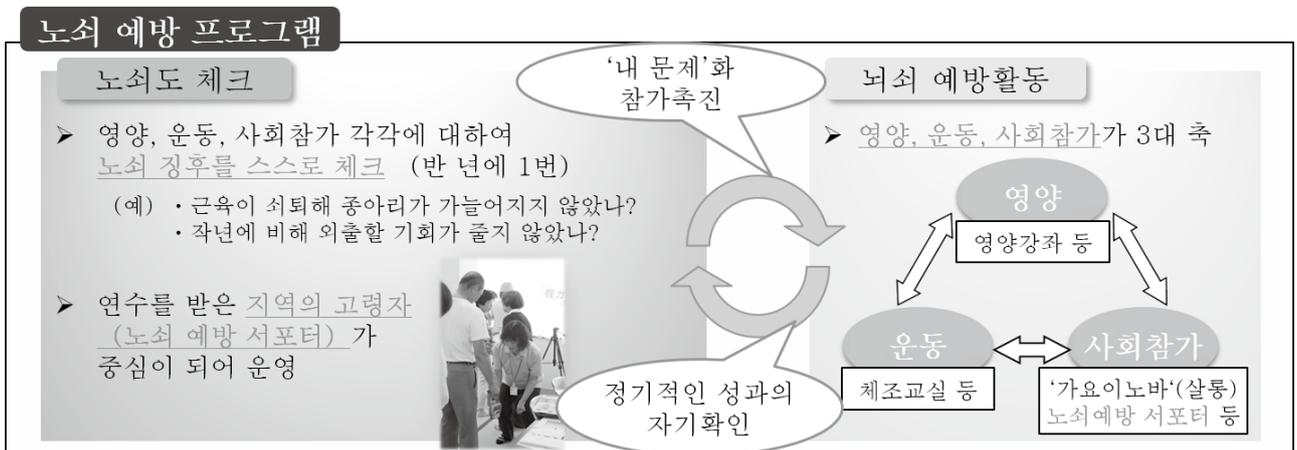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2019년 5월까지 37번 총 598명의 고령자들의 노쇠도를 체크하였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현 전역의 모든 시·정에서 노쇠도 체크가 도입될 전망이다.
- 모델지구에서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24시간 대응의 실현’, ‘다직종간의 환자정보 공유’ ‘의료·개호의 종합상담창구 설치’와 같은 3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재택케어 모델이 확립되고 2018년 3월에는 현 전역에서 이 체제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 재택케어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 의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파이프가 강화되어 보다 긴밀한 체계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 노쇠체크는 전 시·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지만 체크 참가자를 노쇠예방활동으로 유도하지 못하면 건강수명 연장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데 시·정에 따라서는 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 재택케어 체제가 현 전역에 정비되었으나 현민들의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여전히 재택의료 이용자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4. 참고자료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시즈오카현
시책 명칭	건강수명 연장시책		
개요	<p>건강수명이 일본내에서도 최고수준인 시즈오카현은 ‘시즈오카 총체적인 건강경영 프로젝트’의 전개로 현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외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사회건강의학’에 기초하여 선진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회건강의학대학원 대학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건강수명을 더욱 연장시키고 현민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연령인구도 증가하는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여 전세계로부터 동경받는 건강장수 ‘후지노쿠니(시즈오카현)’를 지향하고 있다.</p>		
예산액	15.7 억엔	14.9 백만 미달러	

### 1. 과제 (현재 상황)

- 본 현의 고령화율은 2019년 4월 1일 현재 29.1%. 2045년에는 38.9%까지 상승할 추계.
- 2045년의 생산연령인구는 2015년에 비해 71만명 감소하여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는 인원이 3.1명(2005년)에서 1.3명(2045년)으로 감소, 부양하는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
- 후생노동성이 산출한 건강수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건강장수현(남녀 계 73.82세, 전국 2위)인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 2. 목표(장래상)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복지의 충실
- 누구나 건강하고 개성있게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 3. 시책 내용

#### (개요)

####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시책】

- 후지노쿠니 건강장수 프로젝트

현민의 건강수명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①건강장수프로그램의 보급, ②건강마일리지사업, ③기업과의 연계, ④건강장수 연구 ⑤중증화예방대책의 5대 축이 될 사업을 전개.

- 시즈오카 ‘총체적인’ 건강경영 프로젝트

건강경영이란 시점을 도입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도 포함하여 왕성하게 일하는 세대에 대한 인식 강화와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한 생활습관 습득을 추진하는 등 ‘총체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사회건강의학의 추진】

-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강장수 ‘후지노쿠니’의 실현을 목적으로, ①사회건강의학 연구의 추진 ②인재의 육성 ③현민에의 성과 환원 ④거점이 될 체계 구축 등 4가지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유식자회의 위원장:혼조 다스쿠 교토대학 고등연구원 부원장·특별교수)

- (가칭) 시즈오카 사회건강의학대학원 대학의 2021년 4월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후지노쿠니형 인생구분의 제창】

- 고령세대를 중심으로 회춘의식을 유도하여 건강장수의 연장과 건강하고 활기찬 ‘이키이키’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현역 고령자를 응원하는 ‘후지노쿠니형 인생구분’을 2015년에 제창.

#### 【개호마크의 보급】

- 인지증을 비롯하여 개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개호중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개호마크’를 2010년에 작성하여 현 내외로의 보급을 촉진. 전국 517시정촌에서 활용(2019년 4월 30일 현재).

**【후지노쿠니 버추얼 메디컬 칼리지】**

- 의사확보대책의 충실·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학수학 연수자금의 대출과 ‘후지노쿠니 버추얼 메디컬 칼리지’에서 현 내외로부터 의사의 확보 및 지역의 편중 해소에 힘쓰고 있다.
- 동 칼리지 재학중에는 메일매거진이나 동영상 송신 등 web을 활용한 정보송신(통신교육), 하기 세미나 등 현내 행사(스쿨링) 등을 통해 일본 전국 어느 의학부에 재적해 있더라도 시즈오카현 지역의료의 매력을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졸업후(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희망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캐리어에도 배려하면서 현내에서 근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현내에 본부를 둔 모든 보험자로부터 특정검진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정(市町)별 건강지도를 작성(가시화)하여 시정이나 기업의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증진 추진사업소’를 선언하여 건강경영에 착수한 사업소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새비전의 목표치:1,000 사업소, 2018년말 현재:1,817 사업소)
- ‘후지노쿠니형 인생구분’은 현역으로 활약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 시즈오카현 의학면학자금의 2007~2018년 대여자는 1,088명, 현내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61명에 이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 특정검진 수진율이나 특정보건지도 실시율은 서서히 늘고 있지만 목표까지는 간격이 있다. (특정검진 수진율의 목표치:70%, 실시 2016년:54.1%)
- 건강증진 무관심층과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
- 시정의 건강증진계획에의 반영 등 활용 확대가 과제다(후지노쿠니형 인생구분).
- 의사의 지역편중, 진료과 편재가 있다.

**4. 참고자료**

후지노쿠니형 인생구분

호칭	연령구분	설명
노년	백수용 백수온	100세 이상 108세, 111세 포함
	장로	88-99세
	중로	81-87세
	초로	77-80세
장년	장년숙기	다양한 경험을 쌓아 숙달해 있어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세대 (왕성히 일하는 세대)
	장년성기	
	장년초기	
청년	18-45세	사회적, 생활적으로 성장, 발전 과정이며 활력이 넘치는 세대.
소년	6-17세	초등학교 취학에서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의 세대.
유년	0-5세	생명을 얻어 인간으로서 발달·발육하는 세대.

「개호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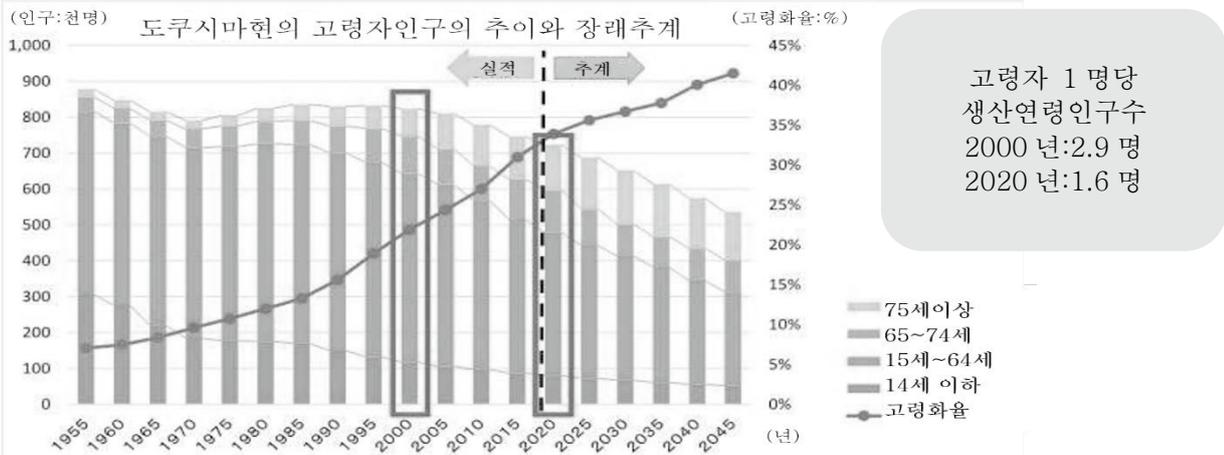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도쿠시마현
시책 명칭	누구나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		
개 요	세계 최고 수준의 평균수명을 자랑하는 ‘장수대국 일본’에서 고령화율이 전국 제 5 위인 도쿠시마현은 ‘과제해결 선진현’으로서 앞으로의 ‘지역사회의 방향’에 관한 모델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을 서포트 하는 고령자로부터 확산되는 ‘웃음넘치는 도쿠시마’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고령자 분들을 ‘서포트 받는 측’이라는 종래의 이미지로부터 전환시켜 높은 의욕을 가지고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지역사회를 서포트하는 ‘새로운 일꾼’으로서 생애 현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액	11,218.3 만엔		105.6 만 미달러

**1. 과제 (현재 상황)**

**【현재 상황】**

- 도쿠시마현에서는 1920년에 고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그 후에도 2000년에는 21.9%로 전국에 앞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1%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 한편, 총인구는 1985년경을 피크로 감소국면에 있으며 고령자 인구가 피크를 맞이하는 202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인구 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 인구 1.6명이 서포트 해야하는 사회의 도래가 예상됨과 동시에 개호(간병)가 필요해질 비율이 높은 75세 이상 인구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무렵이 피크가 될 전망이다.
- 2016년의 후생노동성 ‘의사·치과의사·약제사 조사’에 따르면 도쿠시마현은 인구 10만명당 의료시설 종사 의사수는 전국 1위로 되어 있다.



**【과제】**

- 지금까지 사회의 일꾼이 되어 왔던 젊은 세대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의 활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고령자 자신도 ‘생애 현역’으로 지역을 서포트 하는 주역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 도쿠시마현에서 장래 필요로 하는 개호직원수는 서비스 전망량으로 추계하면 1947~49년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 약 1,400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 의료시설 종사의사수가 많은 반면 면적 100km<sup>2</sup>당으로는 전국 제 29위로 낮으며 인구가 집중해 있는 동부권에 의료시설 종사 의사의 77.5%가 집중되어 있어 의사의 지역편중과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다.

**2. 목표(장래상)**

- 모든 현민들이 안심하고 고령화 시기를 맞이하여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보람있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수사회의 실현
- 현민 한사람 한사람의 상태에 적합한 보건, 의료, 개호 서비스가 제공되어 갈 곳 없는 환자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모든 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쿠시마 만들기

### 3. 시책내용 (개요)

#### (1) 세심한 보살핌 지원 시책

- ‘우애방문활동’, ‘방치하지 않는다 사업’의 실시
  -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서 1984년부터 시작된 ‘우애방문활동’과 2013년에는 장애자가 한계취락의 고령자에게 일용품을 정기적으로 보내 보살피는 ‘방치하지 않는다’ 사업을 개시. 지금까지의 ‘서포트를 받는 측’에서 ‘서포트 하는 측’의 일꾼으로 활약.



【우애방문활동 모습】

#### (2) 액티브 시니어 시책

- 도쿠시마현판 ‘개호 조수’ 제도의 추진
  - 일손 부족이 이어지는 개호현장에서의 ‘일 배분’을 추진하여 시니어 여러분들께 ‘개호 조수’로서 개호의 주변업무(청소, 침대정리, 이용자 말상대)를 책임지는 ‘도쿠시마현판 “개호 조수” 제도’를 2017년에 창설.



【개호 조수의 지원】

#### (3) 풍요로운 고령기 창조에 관한 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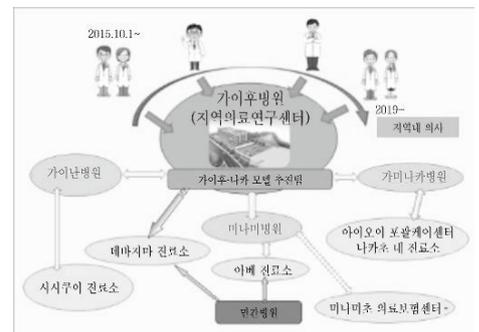
- 실버대학교·대학원의 충실
  - 1981년부터 고령자 자신이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며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실버대학교’를 개교. 나아가 2004년부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실버대학교 대학원’을 개교하여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



【실버대학원에서의 ICT 강좌】

#### (4) 지역의료연계 시책

- 가이후·나카 모델
  - 의사부족이 진행되는 가이후·나카 지역에서 현립 가이후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병원 전체에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체제 ‘가이후·나카 모델’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후·나카 모델】 이미지 그림

####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고령자나 장애자의 ‘고령자 돌보기’ 활동은 독거생활 고령자의 삶의 보람과 교류관계 확대에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자살예방과 고립화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개호 조수’ 제도는 개호현장의 업무 분업화에 따른 개호직원의 부담경감과 고도화, 전문화로 이어짐과 동시에 고령자에게 있어 오래 살아온 지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취업’을 통한 ‘삶의 보람 만들기’,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손 부족이 이어지는 ‘보육분야’로의 확대도 도모할 것이다.
- 실버대학교 대학원 졸업생은 ‘삶의 보람 만들기 추진자’로서 ICT 강좌의 강사나 관광자원봉사 가이드, 방재계발업무의 서포트 등 지역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일꾼의 ‘핵심’으로서 각각의 전문분야에서의 활약이 도모되고 있다.
- ‘가이후·나카 모델’은 의료종사자의 상호교류 및 협력 등 현립 가이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적 의료기관 등이 연계함으로써 의사부족이 진행되는 지역의 의료제공체제 확보가 도모되고 있다.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가가와현
시책 명칭	개호(간병)인재의 확보		
개요	<p>○가가와현의 개호직은 유효구인배율이 전직종의 2 배를 넘는 등 매우 심각한 일손부족.</p> <p>○또한, 가가와현에서는 2020 년도말까지 896 명, 2025 년도말까지 2,465 명의 개호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된다.</p> <p>○그로 인해 개호인재 확보의 3 가지 축인 ‘①개호직에의 신규참입 촉진’ ‘②직원의 자질향상’ ‘③노동환경처우개선’ ‘④외국인재의 수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착수.</p>		
예산액	168,432 천엔 (현지통화)	US\$1,589,000 (US\$환산)	

**1. 과제 (현재 상황)**

- 가가와현의 개호 서비스 직종의 유효구인배율은 3.49 배로 전 직종(1.57 배)의 2 배를 넘어 개호인재의 확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2019 년 5 월 시점)
- 가가와현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81.8%가 개호직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그 88.1%가 ‘채용이 곤란하다’는 것을 부족의 이유로 들고 있다.(2017 년도 개호노동실태 조사)
- 개호 직장은 ‘체력적으로 힘들다’와 같은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현장에서도 가가와현의 개호 서비스 사업소 직원의 36.4%가 ‘체력적 부담이 크다(요통과 체력에 불안요소가 있다)’는 것을 업무상의 고민, 불안, 불만으로 들고 있다.(동 조사)
- 가가와현의 개호직원 이직율은 16.2%로 전 산업의 평균(1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동 조사)

**2. 목표(장래상)**

- 2020 년도말에는 17,424 명, 2025 년도말에는 18,830 명의 개호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제 7 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 기초한 개호인재의 필요수)
- 그러나 2020 년도말까지 896 명, 2025 년도말까지 2,465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됨.(동 계획)
- 개호인재 확보의 3 대 축인 ‘①개호직에의 신규참입 촉진’ ‘②직원의 자질향상’ ‘③노동환경처우개선’과 더불어 「④외국인재의 수용지원」을 도모한다.

**3. 활동내용 (개요)**

**【①신규참입의 촉진】**

-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출장강의와 개호시설에서의 직장체험, 개호복지사를 지향하는 학생에 대한 면학자금 대부, 신인개호직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입직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 년도 합동입직식:74 명 참가)
- 개호의 전문적인 기술을 널리 현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개호직원의 자기연찬의 장으로서 현임직원이 식사, 배설, 입욕, 개조와 같은 평소의 개호기술을 겨루는 ‘가가와 개호왕좌 결정전(개호기술 콘테스트)’을 개최하고 있다.(2018 년도:11 팀 33 명 참가)
- 지역의 건강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개호 미경험자가 수강하기 좋은 ‘입문적 연수’를 현내 6 개소의 개호복지사 양성교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인재의 참입촉진을 도모하고 있다.(2018 년도:96 명 수료)

【②직원의 자질향상】

- 신인직원, 중견직원, 개호지원전문원, 치매증 케어에 관한 직원에의 각종 연수를 실시. (2018 년도 신인직원, 중견직원 연수:총 791 명 참가)
- 직원이 연수를 수강할 때의 대체직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실시. (2018 년도:47 명을 916 일 파견)
- 관계단체가 개호직원의 자질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보조를 실시. (2018 년도:12 단체)

【③노동환경·처우의 개선】

- 매력적인 직장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관리자 대상 연수와 신인직원의 개호현장 정착을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8 년도 시설관리자 연수:총 179 명 참가)
- 개호직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로봇을 도입하는 시설에 대한 조성을 함과 동시에 개호 로봇의 ‘실연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호로봇에 대해서는 2018 년도의 조성 요망이 61 대(전년도 10 대)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현대 개호사업소에도 인지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 ‘개호직원의 처우개선가산’ 취득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노무사를 개호 서비스 사업소에 파견하여 개별적으로 조언, 지도를 하고 있다. (2018 년도:총 108 회 방문)

【④외국인재의 수용지원】

- 경제연계협정(EPA)의 틀 안에서 개호복지사 후보자 수용시설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2008 년도 이후 총 203 명을 수용했는데 자격을 취득하여 현내에 정착한 것은 19 명(2019 년 6 월 현재)에 머문다.)
- 또한, 새로운 채용자격 ‘특정기능’의 창설로 인해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개호인재가 개호현장에서 원활하게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책을 실시한다.
  -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유학생 지원을 위해 시설이 실시하는 장학금 등 일부를 보조
  - 외국인 개호인재의 개호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중핵적인 수용시설이 실시하는 집합연수를 지원
  - 외국인재를 고용하는 사업소 대상 강연회에 맞춰 개호분야에서도 세미나를 개최



4. 참고자료

「개호에 관한 입문적 연수」 진단지

令和元年度 香川県立看護専門学校  
令和元年度 香川県  
介護に関する入門的研修  
介護の仕事に興味がある方、親の介護に活かしたい方を募集!!  
研修後、希望者には就職マッチングも行います!!

高松会場 8/18・9/16・10/13 専門学校次郎(チャリス福祉カレッジ) (高松市西の丸14-10)	丸亀会場 8/24・8/31・9/7 さぬき福祉専門学校 (丸亀市新野町2700)	三豊会場 10/26・11/2・11/9 西国学院大学専門学校 (三豊市高松下新野2851-2)
高松会場 11/23・11/24・11/30 守り会看護福祉専門学校 (高松市西の丸17-9)	宇多津会場 11/30・12/14・12/21 香川短期大学 (香川郡宇多町一丁目10)	高松会場 2/23・3/1・3/8 西国医療福祉専門学校 (高松市上之庄5丁目12-30)

「가가와 개호왕좌 결정전」 진단지

挑戦者募集!  
1チーム3名で介護技術を競う団体戦。  
かがわ KAGAWA  
介護王座 決定戦  
第6回  
出場チーム募集!  
応募締切:2019年9月20日[金]  
出場チームには応募締切後、第5回かがわ介護王座決定戦の課題を送付します。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나라현
시책명칭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개요	<p>건강수명 일본 제일을 목표로 고령자, 장애자를 포함한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수명 일본 제일을 목표로 한 건강증진</li> <li>• 지역의료 포괄케어의 종합 매니지먼트</li> <li>• 복지의 충실</li> <li>•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li> </ul>		
예산액	1,663,114 (천엔)		15,582,441 (US\$)

### 1. 과제 (현재 상황)

- 나라현에서는 2018년 10월 1일 현재 약 134만명의 총인구에 대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약 41만명, 고령화율은 30.8%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 나라현의 2017년의 건강수명은 남성:3위, 여성:33위로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의 남녀 모두 전국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시책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 1947~49년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후기 고령기를 맞이하는 2025년에는 나라현의 개호직원은 약 5000명 부족해질 전망으로 의료, 개호자원의 정비와 인재의 확보 및 의료, 개호의 확고한 연계가 필요하다.

### 2. 목표(장래상)

- 남녀 모두 ‘건강장수 일본 제일’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어 있다.
- 장애자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 등 모든 현민들이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다.

### 3. 시책 내용 (개요)

- 건강증진시책의 추진
  -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건강행동’을 현민에게 장려
    - I 균형잡힌 식사(야채섭취, 저염식)
    - II 적절한 운동(운동·스포츠)
    - III 적절한 사회행동(암검진, 특정건강검진, 외출, 금연)
- 지역포괄케어·재택의료의 충실
  - 현 의사회와 연계하여 재택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의 확대를 추진
  - 지역별 퇴원조정 규칙의 충실과 광역적인 운용 규칙의 조정
- 복지에 관한 나라모델의 구축
  - 현·시정촌장 서밋 등을 통해 현과 시정촌의 연계·협동으로 목적의식을 공유한 시책을 실시
- 출소자의 갱생보호·취업지원, 장애자의 취업지원
- 마을 스포츠의 진흥

###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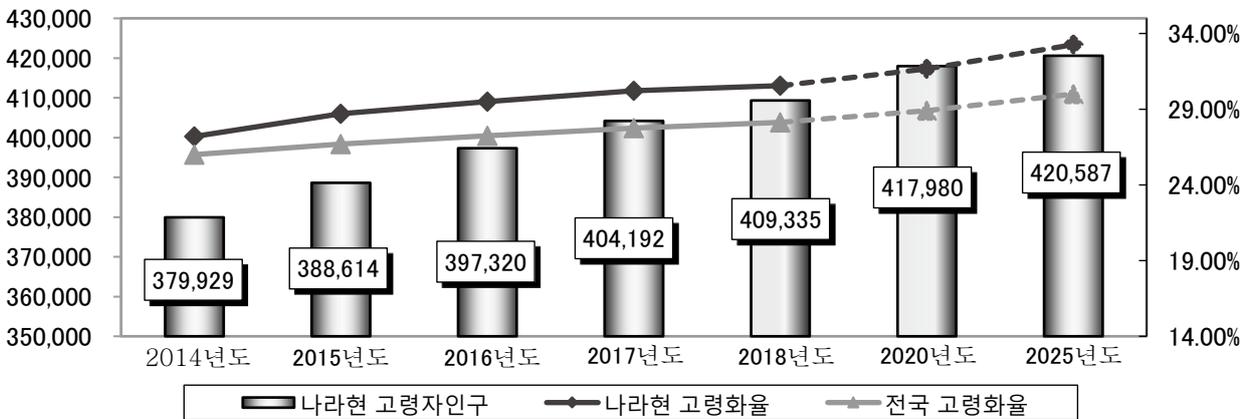
- 건강 스테이션 설치와 ‘이키이키 백세체조’ 실시를 통해 건강증진을 실시하는 실천자가 확대되고 있다.
-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가요이노바’ 등 지역교류의 장이나 돌봄 등의 호조가 발전해 가고 있다.
- 암 의료정보의 가시화를 도모하고 있다.
- 퇴원조정 규칙을 책정, 보급하여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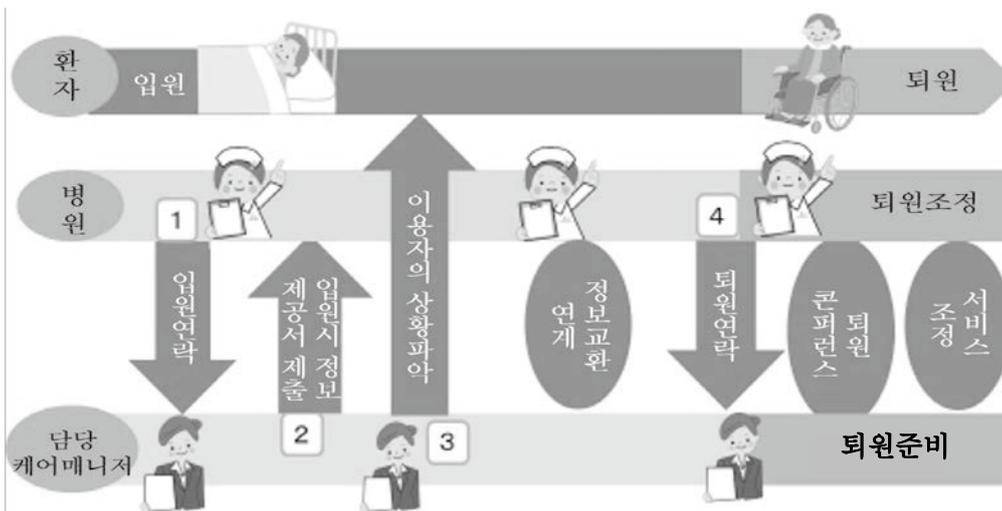
- 개호관계 직종의 인재확보가 곤란하여 일손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 여성의 건강수명이 33위로 남성에 비해 순위가 낮고 개선되지 않았다.
-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호급부비가 증가하여 개호보험료도 상승되었다

## 4. 참고자료

【나라현과 전국의 고령화 추이】



【입퇴원 조정 규칙(입원 전에 케어 매니저가 정해진 경우)】



【건강 스테이션 풍경】



【이키이키 백세체조 풍경】



【가요이노바 풍경】